



# 나의 모든 경험이 커리어가 되는 질문들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 양식입니다.  
단순한 답변을 넘어, 스스로의 커리어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들로 구성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답변해보세요.

---

## STEP 1. 명함 뒤에 숨겨진 '진짜 나' 발견하기

회사의 타이틀(브랜드명, 직급)을 떼어냈을 때, 당신은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만드는 사람인가요?  
나는 매장에서 일할 때 주로 어떤 '동사'를 쓸 때 가장 즐겁거나 에너지가 넘치나요?  
(설득하다, 정리하다, 가르치다, 관찰하다, 연결하다 등)

동료들이 바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꼭 이 사람에게 물어봐야 해"라고 말하는 당신만의 전공 분야는?  
(상품 진열을 멋있게 한다, 동료를 잘 가르쳐준다, 고객에게 정말 친절하다, 감정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등)

---

## STEP 2. '짜치는 일'에서 '콘텐츠' 발굴하기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루틴 속에 당신만의 전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아주 사소하지만 "오늘 이걸 내가 진짜 잘 처리했다"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까다로운 고객의 표정을 바꾼 한마디, 재고 창고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바꾼 일 등)

남들은 대충 넘어가지만, 당신만은 유독 예민하게 신경 쓰는 현장의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 STEP 3. 점들을 이어 '선'으로 만들기 (Connecting the Dots)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고민을 이어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현장 업무 역량이 만약 전혀 다른 산업군이나 직무로 옮겨간다면, 어떤 이름의 '강점'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VM-상품진열, CS-고객응대 특화, Training-직원 교육 및 코칭, Sales-영업/판매능력 우수, Operations-재고정리 등)

전혀 다른 직무와 산업으로 옮겨가더라도 반드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나의 역량이 있습니다.  
짜치는 일이라고 나의 일을 폄하하지 않고 모든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할 때에 더욱 즐겁게 신경써서 해 보는거예요.

---

## STEP 4. 0단계 실행: 첫 줄의 용기

생각만 하던 일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작은 시작입니다. 이력서의 맨 첫줄에 적고 싶은 한 줄이 있나요? 회사 이름 대신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이 드러나게요! 저의 링크드인 프로필 문구를 한 줄로 공유해드릴게요.  
("글로벌 리테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교육 설계와 리더십 코칭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리테일 트레이닝 전문가입니다.")

---